

미셸 슈발리에(Michel Chevalier)의 공동체적 상상력: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지중해 시스템’*

양재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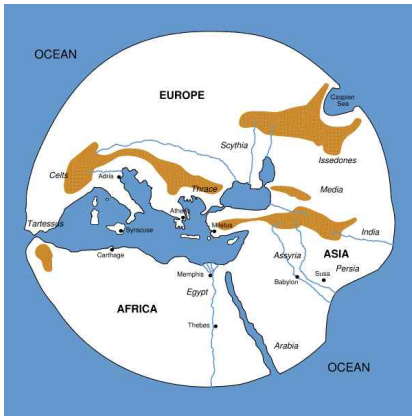
I. 머리말

지중해는 서양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며 등장한다. 지중해는 이주, 식민, 무역, 상업, 평화, 종교, 산업, 자본, 노동, 문화, 교통, 문명, 약탈, 침략, 저항, 전쟁과 같은 역사적 주제와 함께 비극적 또는 희극적 사건의 무대로서 또는 그 자체가 주역으로서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역사를 구성한다. 지중해는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이주, 무역, 식민은 물론 전쟁, 약탈, 추방, 피난과 같은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는 이동의 장소였다. 특히 식민과 이주는 고대 그리스인의 기원 및 정체성을 파악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지중해는 이미 고대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¹⁾ 우리에게 알려진 서양의 역사는 지중해의 문명사로 이해할 수 있다. 서양의 문자 역사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로 시작한다. 민족이나 종족의 역사가 아닌 세계의 역사로서 출발한 서양의 문자 역사는 지중해를 배경으로 벌어진 세계적 전쟁에 관한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의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기원전 6세기경 밀레투스 출신 헤카타이오스(Hecataeus of Miletus)의 지도²⁾는 세계에 관한 고대 그리스인의 관점을 잘 보여준다. 원형의 대지가이아는 대양 오케아노스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지의 중심에 지중해가 위치한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524)

1) 최혜영, 「고대 지중해 식민 활동과 여성」, 『서양고대사연구』, 52호(2018), 108쪽.

2) <https://www.hellenicaworld.com/Greece/Person/en/Hecataeus.html> (검색일: 2023년 04월 15일)



[그림 16] 헤카타이오스의 지중해 지도 (기원전 6세기)

서양 중세에도 지중해는 다양한 민족과 문명의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가 교류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중세 시기 서구 유럽과 아랍 세계는 군사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상호 교류는 멈춘 적이 없다. 앙리 생시몽(Henri Saint-Simon)이 지적한 대로 아랍 실증 과학의 유입은 근대 유럽 문명을 탄생시키는 기반을 구성한다. 유럽은 이슬람 스페인과 남부 이탈리아의 중개를 통해 아랍의 과학 지식의 다양한 요소들을 받

아들었다. 아랍 문명은 그리스 사상을 정제하고 나서 지중해를 통해 라틴 세계로 소통했다. 16세기 들어 이런 문화적 교류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유럽 강대국, 특히 스페인이 지중해를 벗어나 아메리카로 관심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중해는 서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는다.³⁾

근대 들어 지중해는 크고 작은 다양한 세력의 각축장(arène)으로 등장한다. 18세기 지중해는 다양한 지리적·역사적 동기에 따라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상속된 반목, 대립과 경쟁, 그중에서도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 간의 대립, 그리스 동양과 라틴 서양 간의 분열, 정복에 기초한 대제국의 약화에 따른 지역 권력들의 분열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들어 지중해는 영국과 프랑스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1815년, 패배한 프랑스로서는 유럽에서 자신의 세력을 입증할 능력이 없었다. 바로 그때 지중해가 프랑스가 야심을 발휘할 새로운 장이 되었다.

그러나 지중해에서 진정으로 강한 세력은 오직 하나, 영국이었다. 영국은 먼 저 바다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이득을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

3) Émile Temime, *Un rêve méditerranéen: Des saint-simoniens aux intellectuels des années trente (1832-1962)* (Marseille: ACTES SUD, 2002), pp. 15-20.

이 획득한 여러 곳의 거점과 산업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영국에게 지중해는 시장이었다. 또 그것은 세계를 내다보는 그들의 관점에서 아시아를 향한 전략적 요충지였다.⁴⁾

군사적·경제적·학문적으로 동양에 관한 서양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나폴레옹의 이집트 침공 이후 지중해는 프랑스와 영국이 경합하는 무대가 된다.⁵⁾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탈식민지의 물결로 시작하는 19세기 초 서양 세력의 지중해 진출은 뚜렷한 경향을 형성했으며, 유럽 강국의 지중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강화됐다. 프랑스와 영국의 지중해 지역으로의 진출은 지중해 연안 대부분의 국가에 정치·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 개혁과 경제적 각성이라는 충격을 가했다.⁶⁾

이와 같이 지중해는 서양의 문자 이전 역사에서부터 서양 문명의 지리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활동의 중심이다. 독보적인 지중해 역사 연구가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은 펠리페 2세 시대, 곧 15~16세기의 지중해를 서구 근대의 탄생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연구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⁷⁾ 브로델은 펠리페 2세 시대를 벗어나 문자 이전 역사 시대 지중해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페르낭 브로델에게 지중해는 근대라는 시간 속에 가둘 수 없는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사물의 ‘교환’이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인 것으로 보인다.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지중해까지 내려왔지만 그 경계에서 어김없이 멈추었기 때문에 지중해가 곧 세계의 살아 있는 중심이 되었고, 지중해

4) Jean Carpentier·François Lebrun, 강민정·나선희 역, 『지중해의 역사』 (파주: 한길사, 2006), 387쪽.

5) Émile Temime, *Un rêve méditerranéen*, p. 23.

6) 영국은 지중해 지역에서 1802년 몰타를 식민화하고, 1815-1864년 이오니아 제도를 보호령으로 삼았으며, 1878년 키프로스를 매입했고, 1882년 이집트를 점령하고 1920년에는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했다. 프랑스는 1830년 알제를 점령하고, 1881년 튀니지야, 1912년 동모로코를 보호령으로 만들고 1920년에는 시리아와 레바논이 위임통치하여 북아프리카 지방에 지중해 제국을 건립하려 했다. 19-20세기 지중해는 오스만제국의 와해와 새로운 유럽 제국들이 대두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용우, 「프랑스 유럽·지중해문명박물관(MuCEM)의 지중해주의」, 『역사와세계』, 54호(2018), 111쪽.

7) Fernand Braudel, 주경철·조준희 역, 『지중해: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서울: 까치, 2017).

가 공명관처럼 그 거대한 대륙들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따라서 지중해는 세계의 역사가 집약되는 곳이었고, 지중해의 역사는 멀리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쌍방향의 흐름이 과거 역사의 주된 특징이었다. 지중해는 주는 것이 있었고 받는 것이 있었다. 그렇게 교환된 '선물'은 재앙일 수도 있었고 은총일 수도 있었다. 모든 것이 뒤섞였다.⁸⁾

19세기 들어 지중해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서 결정적인 변화를 맞는다. 지중해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급진적인 공간의 전환을 목격한다. 1830년대와 1840년대의 운송수단의 혁명으로 지중해에서는 서구인의 새로운 활동과 기획이 등장한다.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생시몽주의자 미셸 슈발리에(Michel Chevalier)의 '지중해 꿈' 또는 '지중해 시스템'⁹⁾ 기획이다. 슈발리에에는 민족주의 경향의 대두, 자본주의의 경제적 팽창이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지중해 시스템'을 통해 생시몽주의 종교의 '동·서양의 보편적 연합' 교리에 관한 그만의 고유한 해석과 유토피아적 전망을 제시한다.

II 동·서양 문명의 보편적 연합 '지중해 시스템'

미셸 슈발리에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해저 철도 터널의 건설, "유럽 민족 공동체"의 설립과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평화의 세계"를 추구했던 "예지자의 정신"을 가진 인물이었다.¹⁰⁾ 슈발리에에는 에콜 폴리테크닉(l'École polytechnique)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에콜 데민느(l'École des

8) Fernand Braudel, 강주현 역, 『지중해의 기억』 (과주: 한길사, 2006), 73 쪽.

9) 『지중해 시스템』은 생시몽주의 기관지 『르글로브』(*Le Globe*)의 편집장이었던 슈발리에가 1832년 초에 '지중해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일련의 글들의 모음으로 『생시몽주의 종교: 산업 정치와 지중해 시스템』 [*Religion saint-simonienne: Politique industrielle et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aris: Bureaux du Globe, 1832)] 저서에 『르글로브』의 다른 기사들과 함께 포함되어 출간된다. 생시몽주의 연구자들은 통상 『지중해 시스템』을 저서로 다루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신문 기사가 아닌 저서로서 표시한다. 저서를 가리킬 때는 『지중해 시스템』으로 표기하며, 슈발리에의 련의 기획을 의미할 때는 '지중해 시스템' 기획으로 표기할 것이다.

10) Michael Drolet, "Industry, Class and Society: A Historiographic Reinterpretation of Michel Chevalier",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123:504(2008), p. 1229.

mines)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다. 그는 1830년 전도유망한 공학기사(ingénieur)의 경력을 그만두고 생시몽주의 운동에 참여하여 생시몽주의 운동 지도자 프로스페 앙팡탱(Prosper Enfantin)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된다. 슈발리에에는 생시몽주의 종교에 헌신한 이후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그는 생시몽주의 기관지 『르글로브』(*Le Globe*)의 편집을 책임졌으며, 앙팡탱과 지방 교회와의 모든 서신을 작성하고 관리했다. 슈발리에에는 생시몽주의 집단에 대한 정부의 탄압으로 지도자 앙팡탱과 함께 생트펠라지(Sainte-Pélagie) 감옥에 투옥되고, 이후 앙팡탱과 절연할 때까지 생시몽주의 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¹¹⁾

생시몽 사후에 전개된 생시몽주의 운동은 1831년에 운동 지도자 최고 성부 아망 바자르(Amand Bazard)와 앙팡탱의 분열과 일부 구성원의 이탈로 위기에 빠진다. 권력 투쟁에 승리한 ‘유일 최고 성부(le seul Père suprême)’ 앙팡탱은 ‘여성’과 ‘동양’이라는 새로운 주제 중심으로 생시몽주의 윤리 담론을 주도하며 운동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시킨다. 앙팡탱은 새로운 생시몽주의의 “윤리적 질서의 작업”을 에밀 바로(Émile Barrault)와 샤를르 조셉 랑베르(Charles Joseph Lambert)에 맡기고, 정치적 사업은 슈발리에가 지도하도록 지시한다. 앙팡탱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새로운 생시몽주의 담론은 문학적·감성적 방향으로 에밀 바로에 의해서, 정치·경제적 방향으로 미셸 슈발리에에 의해서 스승 생시몽의 이론은 물론 초기 생시몽주의 운동의 논의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앙팡탱이 유일 성부로서 생시몽주의 집단을 이끌면서 생시몽주의 담론에

11) Jean Walch, “Problèmes Saint-Simoniens et problèmes contemporains: Le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de Michel Chevalier”, *Revue Philosophique de la France et de l’Etranger*, 153(1963), p. 422. 슈발리에에는 앙팡탱과 결별 이후 경제적 자유주의자와 정치 관료로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그의 자유 무역을 변호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사실 앙팡탱과의 결별 이후에도 생시몽의 사상 또는 생시몽주의 학파의 사상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슈발리에에는 경제적 자유주의자로 알려졌지만, 그의 사상은 ‘국가’, ‘노동 계급’, ‘역사 인식’ 문제에서 생시몽의 사상과 깊은 연관을 유지했다. 따라서 생시몽주의의 사도로서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의 슈발리에의 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이후 슈발리에의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과의 단절을 확인한다기보다는 그것과의 연관을 확인하는 작업일 것이다. 슈발리에의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과 생시몽주의 연관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Michael Drolet, “Industry, Class and Society”.

서 여성과 동양이라는 주제가 급부상하는 데 바로의 역할이 중요했다. 앙팡탱의 새로운 윤리를 선전하는 데 앞장섰던 바로는 설교를 중심으로 ‘오리엔탈리스트’의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학적 담론을 생산했다. 생시몽주의 종교의 열렬한 전도자 바로는 “예술과 사회의 밀접한 연관과 사회적 책무”에 주목하며, “미학 이론을 생시몽주의 주요 이슈와 유기적으로 접속”했다.¹²⁾ 생시몽주의자들의 동·서양 연합 담론은 프랑스 오리엔탈리즘 전통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낡은 대립(남성/여성, 정신/신체 등)에 기반을 두는 “본질주의적인 시각”으로 동양과 서양의 본성을 고정시킨다.¹³⁾ 바로는 앙팡탱이라는 서구 유럽 남성으로서의 유일 성부의 옆자리를 채울 여성 메시아 성모를 찾기 위해 여성 원정대(Compagnons de la Femme)를 이끌고 지중해 연안 지대를 탐색하기도 한다.



[그림] 17 미셸 슈발리에
<https://www.societe-des-etudes-saint-simoniennes.org/chevalier>

슈발리에에는 동·서양의 연합 교리를 정치·경제적인 차원에서 산업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건설하려는 야심찬 기획으로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지중해 시스템’은 “앙팡탱의 새로운 윤리에 대한 물질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슈발리에에는 유럽의 통합 또는 유럽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생시몽의 기획을 동·서양 문명의 연합을 전망하는 ‘지중해 시스템’ 기획으로 확장한다.¹⁴⁾

생시몽주의 동·서양 연합 담론은 동양에 대한 서양의 군사적 정복을 합법

12) 옥영수, 『근대 유럽의 설계자: 생시몽·생시몽주의자』 (서울: 소나무, 2022), 200쪽.

13) Michel Levallois et Sarga Moussa (dir.), *L'orientalisme des saint-simoniens* (Paris: Maisonneuve & Larose, 2006), pp. 8-10.

14) Michel Chevalier, “Notre politique”(Le Globe, 21 mars 1832), *Religion saint-simonienne: Politique industrielle et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aris: Bureaux du Globe, 1832), p. 17.

화하는 당대에 지배적인 정치적 담론과는 구별되며 적어도 명목적으로는 폭력을 통한 동양 억압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시한다.¹⁵⁾ 특히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 기획은 동양과 서양 사이의 산업적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동양과 서양의 화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평화적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중해 시스템’은 군사적 지배를 통한 영광을 추구했던 나폴레옹을 추억하는 “영웅주의”와 서양의 정복 의지와 구별되는 기획으로서 세계의 경제적 질서를 유럽 민족 중심으로 재편성하려는 시도이다.¹⁶⁾

슈발리에에 봉건적 질서를 옹호하는 특권 계급뿐만 아니라, 여성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동양을 단지 무력과 멸시로 경멸했던 프랑스 민족을 비판하면서, 앙팡탱의 윤리로 여성과 동양에 관한 기존 편견을 대체하여, 종교적 평등 위에서 여성을 남성과 결합시키고, 동양을 서양과 통합시키는 생시몽주의 사도로서의 미션을 강조했다.¹⁷⁾

슈발리에에 기존의 동양에 대한 부정적이고 유럽 중심적인 편견을 비판하면서, 인류적 차원에 이루어질 생시몽주의 운동에서 동양에게 능동적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⁸⁾ ‘지중해 시스템’은 문화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에서 이기주의와 반목 또는 대립으로 마비된 세계를 재생한다는 계획에 초점을 맞춘다. 슈발리에에 따르면, “유럽은 오직 다른 문명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동양 역시 서양과 독립하여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서양 없는 동양은 영혼 없는 신체와 다름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 위기는 더 이상 유럽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의 혼란과 전쟁, 위기는 동양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될 수 있다. 앙팡탱이 선언한 법칙은 육체와 정신의, 산업과 과학의, 동양과 서양의, 여성

15) Michel Chevalier, “Notre politique”(Le Globe, 21 mars 1832), p. 18.

16) Anouar Louca, *L'autre Égypte de Bonaparte à Taha Hussein* (Le Caire: IFAO, 2006), p. 69.

17) “Notices Historiques, II Enfantin, XVII(1832, Février)”, *Œuvres de Claude-Henri de Saint-Simon et d'Enfantin* (Paris: E. Dentu, 1865-1876), Vol. 6, pp. 12-14.

18) Philippe Régnier, *Les saint-simoniens en Égypte (1833-1851)* (Le Caire: Banque de l'Union Européenne, Amin Fakhry Abdelnour, 1989), p. 9.

19) Francis Démier, “Les Europe des saint-simoniens”, Nathalie Coilly et Philippe Régnier, (dir.), *Le siècle des saint-simoniens: du Nouveau christianisme au canal de Suez* (Paris: Bnf, 2006), p. 163.

과 남성의 진보적인 조화 또는 연합이다. 늙은 유럽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다. 따라서 슈발리에에게 동양은 더 이상 지리적 문제가 아니라, 동양과 서양 모두의 삶이 걸린 존재론적 문제로 부상한다.²⁰⁾ 슈발리에에는 동·서양 연합의 정치는 지중해 연안 지역들을 재생시킬 수 있는 ‘지중해 시스템’을 수립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²¹⁾

유럽의 시인들은 ‘지중해 시스템’ 이전에 이미 동양을 찾아 동양의 관능적 자연을 찬탄하고 “지나간 영광의 자취와 다가올 영광의 씨앗을 찾으면서” 동양과 서양의 연합을 예지했다. 슈발리에에는 자신의 시대에는 시인들의 예지와 상상으로 만든 동·서양의 근접을 실제적인 산업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²²⁾ ‘지중해 시스템’은 동양을 문명과 번영의 길을 걸게 만드는 동양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유럽 민족 간의 대립과 전쟁의 공간을 넘어, 민족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무대, 곧 지중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트랜스내셔널 공간에서 활기를 잃고 늙어가는 유럽을 재생시키기 위한 “사회 조직의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는 사업이다. 민족의 이해 관계에 바탕을 둔 유럽 민족의 경쟁은 “이기주의”로부터 비롯되는 병폐와 쇠퇴를 결과할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슈발리에의 기획은 문명 발전의 요구에 다름이 없다.²³⁾

슈발리에가 전망하는 ‘보편적 연합(l’association universelle)’ 시스템은 단순히 민족의 연방이나 정부 간의 경제 조약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보편적 연합은 “모두를, 정당들, 계급들, 인종들 그리고 성들을 정당하게 인정해야만” 가능한 “노동의 조직”이다. 보편적 연합은 모든 민족이 참여하는 일반 사업과 각 민족에게 부여되는 이차적 특수 사업으로 구성되는, “지구 전체를 포함하는 산업적 노동 시스템의 조직”이다. 따라서 ‘지중해 시스템’ 기획은 유럽의 경제적 재구조화로 이해할 수 있다.²⁴⁾

20) Philippe Régner, *Les saint-simoniens en Egypte (1833-1851)*, p. 10.

21) Michel Chevalier,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p. 126-127.

22) Michel Chevalier,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 126.

23) Francis Démier, “Les Europe des saint-simoniens”, p. 163.

24) Michel Chevalier, “Politique d’association”(Le Globe, 30 mars 1832), *Religion saint-simonienne: Politique industrielle et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p. 31-33.

유럽 민족 중에서 프랑스 민족은 경제적 재구조화 정치의 중심을 구성한다. “자식”들을 전쟁터로 보내 얻은 “고통”과 “보물”을 대가로 “세계의 평화와 진보”를 사는 유럽 민족들에게 프랑스는 “예수”와 같은 존재로서²⁵⁾ 유럽 민족을 결집하는 “세계의 축”²⁶⁾으로 기능한다. 영국과 독일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천재성으로 프랑스를 도와 “다른 민족을 점차적으로 통합하는 지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할 것이다. 세 민족이 중심이 되어 당대의 지배적인 군사적 정복 대신 산업 발전에 기초하는 보편적 조직을 수립할 것이다.²⁷⁾

[……] 우리의 일반 정치는 인간 존재의 세 가지 능력을 가장 완벽하게 대표하는 세 민족, 곧 사교적이고 공감적인 민족 프랑스 그리고 산업적이고 물질주의적 민족 영국 그리고 정신적이고 학자적인 독일의 연합 위에 이뤄졌다: 우리에게 눈에 유럽의 다른 민족 대부분은 몰락했다.²⁸⁾

역사를 문명 간의 일련의 이주, 만남, 충격으로 이해하는 생시몽주의자로서 슈발리에에는 생시몽주의 특유의 계서적 문명 인식으로 역사를 이해한다.²⁹⁾ 프랑스를 중심에 두고 영국과 독일이 이끄는 유럽 민족은 문명 계서체의 높은 단계에 위치하여, 서양의 문명과 강제적 힘을 동원하여 동양을 “무지한 혼수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슈발리에의 서사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적인 동양과 서양의 열등과 우월의 계서적 이분법을 확인할 수 있다. 문명의 역사에서 우월한 서양과 열등한 동양은 생시몽주의자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자 현실이다. 여기서 문명에 대한 생시몽주의자들의 계서적 이해는 단지 물질적 부분뿐만 아니라 윤리적·정신적 부분에까지 확장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열등한 문명 또는 비(非)문명일 수도 있는 동양은 물질적·정신적으로 우월한 문명의 안내에 따라 새롭게 재생될 존재로 운명 지워진다. 생시몽과 마찬가지로 생시몽주의자들 역시 미래 전망의 중심은 유럽이며, “유럽 이외의 다른 중심”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³⁰⁾

25) Michel Chevalier,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 121.

26) Michel Chevalier, “Notre politique”(Le Globe, 21 mars 1832), p. 18.

27) Francis Démier, “Les Europe des saint-simoniens”, p. 162.

28) Michel Chevalier, “Notre politique”(Le Globe, 21 mars 1832), p. 16.

29) Antoine Picon, *Les saint-simoniens. Raison, imaginaire et utopie* (Paris: Belin, 2002), p. 21.

30) Philippe Régnier, *Les saint-simoniens en Égypte (1833-1851)*, p. 7.

“최고의 행동 인간”³¹⁾ 생시몽주의자들은 생시몽주의 특유의 계서적 문명관과 오리엔탈리스트 이분법적 인식을 공유하며 인간의 삼위일체의 능력(산업, 과학, 윤리)에 따라 유럽 민족을 분류하고, 문명의 빛을 대표하는 유럽 민족이 동양으로 팽창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합법적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동양으로의 서양의 열정적 인간들의 방출”³²⁾을 승인한다. 슈발리에에는 서구 민족의 문명화 사명의 실천 무대로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서양의 보편적 연합 네트워크를 설명하면서 동양에게는 어떤 임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동양은 유럽 민족 사업의 무대일 따름이다. 그러나 유럽 민족 각각에게는 동양과 달리 개별적으로 특수한 임무가 할당된다. 스페인에게는 “문명이 그것을 따라 흐르면서 잠든 스페인을 깨울 정맥과 동맥의 시스템”을 수립하는 임무를, 프랑스에게는 “영국에게 지중해 주변을 열어주는” 역할을, “산업의 여왕” 영국에게는 “폐허 더미 안에서 반은 매장된 동양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서구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평화적 십자군”으로서 “지중해 민중들의 재생”을 안내하는 “아름다운 역할”을, 이탈리아에게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대한 유럽의 사자(使者)”라는 시대적 미션을, 독일에게는 “지적 유대”를 수립하는 역할, 곧 “모든 민족을 통일로” 결집하여 “이 위대한 운동”으로 이끄는 역할을 맡긴다.³³⁾ 물론 ‘지중해 시스템’은 동양에 관하여 침묵만을 유지하지는 않는다. 동양에 관한 언급은 동양 민족의 역할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동양의 풍광과 역사에 대한 묘사로 이뤄진다. 슈발리에게 동양은 서양의 도움 없이는 과거에 묻힌 사막일 뿐이다. 동양은 수많은 민족이 “지나간 시적인 대지” 그리고 “수많은 위대한 제국의 파편”으로 평탄하게 된 대지 그리고 오늘날에는 지나간 영광의 몰락에서 기인하는 “먼지”로 뒤덮인 지역이다.³⁴⁾

‘지중해 시스템’ 사업에서 유럽 민족은 사업의 주체이자 “저자”로서 제시되지만, 동양 민족들은 내부의 구분 또는 구별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의 균질한 덩어리, 집단으로서, 철도망과 수로망이 “즐거운 그림”을 제공할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캠퍼스와 같은 “공간”으로 간주된다.³⁵⁾ 이 위대

31) *Œuvres de Claude-Henri de Saint-Simon et d'Enfantin*, vol. 9 (Paris: E. Dentu, 1865-1876), p. 63.

32) *Ibid.*, p. 95.

33) Michel Chevalier,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p. 136-141.

34) *Ibid.*, pp. 143-144.

35) *Ibid.*, p. 145.

한 ‘즐거운 그림’은 당연히 서구 민족이 그릴 것이다. 슈발리에의 ‘즐거운 그림’은 이후 식민주의 역사를 예고하는 듯하다.

III. 자유주의 비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에밀 테뫼므(Émile Temime)는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을 생시몽주의자들의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의 사업 활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로 평가하면서, 오랫동안 프랑스인들에게 잊혔던 지중해라는 공간에서 일하게 될 미래의 엔지니어와 사업가에게 많은 영감을 제공했다고 말한다.³⁶⁾ ‘지중해 시스템’ 기획은 산업을 정치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슈발리에의 신념이 담겨있다. 슈발리에에 제국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산업은 “최고의 정치적 사실(le fait politique par excellence)”로서 다뤄져야 하며, 당시 유럽을 지배하는 “전쟁의 이해관계”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산업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모든 민족의 역량과 “천재성”을 결집하여 세계적인 산업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⁷⁾ ‘지중해 시스템’ 기획은 이후의 생시몽주의자들의 동양 원정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영감과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너무 오랫동안 잊혀졌던 세계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서양과 동양의 물질적 이해관계의 화해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³⁸⁾

생시몽은 미국 혁명에서 유럽 사회의 미래를 보았으며 새로운 유럽 사회의 핵심적 특성을 ‘자유’로 정의한다. 생시몽이 전망한 ‘자유’는 형이상학적 원리가 투영된 추상적 인권이라기보다는 산업 활동의 실제적인 자유이다. 인간과 물자는 물론 지식과 독트린이 이동이 자유로운 세계가 생시몽

36) Émile Temime, “Rêves méditerranéens et présence française en Orient au milieu du XIX^e siècle”, Michel Levallois et Sarga Moussa (dir.), *L’orientalisme des saint-simoniens* (Paris: Maisonneuve & Larose, 2006), p. 19.

37) Michel Chevalier, “Organisation industrielle de l’armée”(Le Globe, 8 mars 1832), *Religion saint-simonienne: Politique industrielle et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p. 8-10.

38) Émile Temime, “Rêves méditerranéens et présence française en Orient au milieu du XIX^e siècle”, p. 19.

이 전망한 미래의 유럽 사회이다.³⁹⁾ 슈발리에에는 생시몽이 전망하는 미래의 산업 활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유럽 민족 국가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유럽 민족과 비유럽 민족, 동양과 서양 문명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확대한다. ‘지중해 시스템’은 생시몽의 유럽 공동체기회를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확장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중해 시스템’ 기획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네트워크가 아니다. ‘지중해 시스템’ 기획은 물질적인 연결(또는 유대)로서 산업 생산 중심 지역을 연결하는 육지에서의 철로와 운하와 강 그리고 바다의 항로로 구성되는 “교통로(des voies de transport)”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정신적 연결(또는 유대)을 상징하는 은행들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건설하여 지중해를 무대로 진정한 “동양과 서양의 대문자 보편적 연합(l’ASSOCIATION UNIVERSELLE)”을 실현하고자 한다.⁴⁰⁾

슈발리에에는 자신의 기획을 당대의 지배적 사상인 자유주의와 대비시키면서, 기원적으로 민족 간의 경쟁에 기반하는 자유주의는 “범세계주의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족들을 “적대적인 애국주의”로부터 구원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슈발리에에는 ‘지중해 시스템’ 기획은 자유주의보다 “훨씬 더 폭넓은 대중의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를 통하여 평화적인 보편적 연합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지중해 시스템’은 자유주의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정치에 기인하는 세계적인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동·서양 민족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⁴¹⁾ ‘지중해 시스템’은 당대에 경합하는 정치세력, 중도파, 정통왕조파, 자유주의파들과 구분되는 정치를 추구한다.

자유주의는 그것을 둘러싼 정파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배척한다; 자유주의는 스스로를 선의 표본으로 믿으면서, 중도파와 정통왕조파는 악의 화신이라고 판결한다.

39) *L'Industrie*(1816-1818), *Henri Saint-Simon Œuvres complètes*, vol. II, Juliette Grange, Pierre Musso, Philippe Régner et Frank Yonnet(introduction, notes et commentaires) (Paris: Puf, 2012), pp. 1478-1480.

40) Michel Chevalier,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 131.

41) Michel Chevalier, “Notre politique”(Le Globe, 21 mars 1832), pp. 15-16.

자유주의의 진영에서 빠져나온 우리는 먼저 자유주의자들의 방식을 거부해야만 했다. 그 기원에서 우리의 정치는 자유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폭넓은 대중적인 공감(des sympathies populaires)이라는 특징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들 [자유주의자들]은 대중을 위해 **형이상학적인** 권리, 다소 수정된 **보통 선거**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대중들을 위해 **윤리적, 지적, 신체적** 질서에서의 향상을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이 노동 도구와 생산의 분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으면서 **신비주의적** 평등을 추구하는 동안 우리는 모든 출생의 특권들은 **예외 없이**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²⁾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은 당대의 경제적·정치적 자유주의 경향과의 차별로 구성된다. 슈발리에에 당대의 자유주의를 비판하며, ‘평화’의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면서, 자유주의자와의 구분을 흐리게 하던 전쟁의 불가피성에 대한 입장도 바꿨다. 생시몽주의자들은 민주주의 대의를 위한 자유주의자의 추상적 구호 대신 새로운 사회 조직을 앞당기는 실천의 문제를 자신들의 과업으로 설정했다. 산업을 통한 사회 조직이 진보이며, 이는 평화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그들 담론에서 전면에서 나서게 된다. 생시몽주의자들의 평화 담론은 구체제의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나폴레옹 군사 체제는 물론, 당대의 공화주의자들의 보편 선거 대의와의 구분이자 단절이다. 스승 생시몽의 계서적 사회 인식을 이어받은 생시몽주의자들은 지배와 존경을 기반으로 하는 질서 유지의 관념을 존중하며 구체제의 폭력적 전복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명한다. 그들에게 평화는 산업의 발전 형식일 뿐 아니라 사회 질서의 근본적 성격 중의 하나인 계서적 구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에서도 자유주의와의 구분으로서 평화의 담론이 등장하며, 계서적 평화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슈발리에에 따르면, 전쟁은 유럽의 현재 위기를 종식시킬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슈발리에에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고 평화 속에서 번영과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실증적 수단으로서 ‘지중해 시스템’ 기획을 제시한다. 슈발리에에 따르면, 현재 세계는 계속적인 진동 운동에 놓여 있으며, 세계는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균형을 찾으려 하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균형의 상태는 타민족에 대한 일부 민족의 억압에 기초하고, 각 민족 내에서 질서는 여러 계급에 대한 일부 계급의 착취에 기초하기 때문이다.⁴³⁾

42) Ibid., pp. 15-16. 굵은 글씨로 강조된 부분은 본문에서 이탤릭체로 표시된 부분이다.

자유주의의 경쟁을 자연적 원리로 수용하며, ‘연합’보다는 추상적인 ‘자유’ 이념에 갇혀 고립된 유럽 민족에게 슈발리에에 동양과 서양의 연합에 기반한 “최종적인 평화”를 약속하는 ‘지중해 시스템’ 기획을 제시한다.⁴⁴⁾

새로운 정치는 각 민족의 장점을 인정한다. 이런 윤리의 물질적인 해석인, 지중해 시스템은 동양을 서양의 수레에 묶는 대신에 그들의 오랫동안의 잠에서 깨어나 행진하도록 그들의 열정적인 노력을 찬양하고 세계의 왕관을 공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⁴⁵⁾

개인은 물론 민족 간의 경쟁을 장려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유럽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프랑스 역시 다른 유럽 민족과 마찬가지로 세계에 대한 지배, 곧 억압에 기초하는 정치를 실행하고 있다.⁴⁶⁾ 산업의 발전이 개인은 물론 민족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회적 유대의 출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중해 시스템’은 생시몽의 유럽의 산업 공동체 기획을 계승한다. ‘지중해 시스템’이 목표로 하는 평화로운 사회적 유대는 인간의 이동과 물자의 수송을 위한 철도와 해양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형태로 실현될 것이다.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모델”과 “보편적 평화”는 “서양과 동양 사이의 유대”와 “커뮤니케이션의 거대한 축들”, 곧 런던, 파리, 마르세이유, 수에즈 운하, 동양 위에 설립될 것이다.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은 ‘민족들의 보편적인 연합’이라는 새로운 기반 위에 수립되는 “지중해 연방(*confédération méditerranéenne*)”이다.⁴⁷⁾

IV. 철도 기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은 ‘반목’, ‘긴장’, ‘대립’ 등으로 구성되는 생시몽주의 고유의 ‘역사의 역동적’ 인식을 보여준다. 칸트와 헤겔의 사상은 생시몽주의자들의 역사 이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칸트에

43) Michel Chevalier,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 119.

44) Ibid., p. 118.

45) Michel Chevalier, “Notre politique”(Le Globe, 21 mars 1832), pp. 17-8.

46) Ibid., p. 15.

47) Francis Démier, “Les Europe des saint-simoniens”, p. 163.

게서 차용한 ‘항쟁(antagonisme)’ 용어는 슈발리에의 글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칸트의 ‘항쟁’은 생시몽주의의 역사적 역동성 관념에 영감을 제공했고, 헤겔의 철학은 ‘역사적 초월’, 다시 말해 인류와 지구의 최종적인 유기적 통합의 성취라는 생시몽주의 미래 전망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⁴⁸⁾

슈발리에에는 문명과 야만의 대립을 수용한다. 이는 칸트의 설명으로는 ‘자아주의(egotism)’와 ‘사회성(sociability)’의 대립을 의미하며, 슈발리에에게는 물질과 인간 정신 또는 물질적 세계와 인류 사이의 연결을 의미한다. “우주와 개인의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삶의 연결은 슈발리에가 결코 버린 적이 없는 믿음이었다.” “지중해 시스템” 기획은 정체적인 동양으로부터 생산적이고 진보적인 서양으로의 문명 이동과 “문명화된 북부와 야만의 남부의 역동적 긴장”을 함축하고 있다. 슈발리에에는 역사에서의 긴장 또는 항쟁은 역사를 이끄는 추동력으로서 자신의 시대에는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결과할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지중해는 ‘동양과 서양의 결혼 침대’로서 동양과 서양의 합일을 상징한다.⁴⁹⁾

슈발리에의 역사 인식은 앙팡탱이 주도하는 생시몽주의 종교에 근거를 둔다. 앙팡탱에게 신은 세계의 삶이 살아가는 원칙이며, 살아 있는 세계 그 자체, 곧 자연 자체이다. 앙팡탱은 공개적으로 정치적·산업적 “범신론”을 주장한다. 이런 교리적 입장에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된다. 신이 세계와 동일하다면 세계에 대한 지식은 종교적 지식과 다르지 않다. “과학과 종교는 본질적으로 대립되지 않는다.” 종교의 어원적 의미로 말하자면, 인간을 ‘재-연결하는 것(re-lier)’은 인간을 ‘연합하는 것(associer)’이다. 이는 창조자가 인간을 그가 가진 능력에 따라 객관적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다. 연합을 이루는 존재들의 본성으로부터 존재들 사이에서 수립되는 관계의 본성이 나타나게 된다. 문명의 역사를 구성하는 동양과 서양의 긴장과 항쟁은 두 세계의 본성(nature)들의 관계에 따라 서로에게 고유한 역사적 역할이 부여될 것이다.⁵⁰⁾

48) Michael Drolet, “Industry, Class and Society A Historiographic Reinterpretation of Michel Chevalier”, p. 1253.

49) Ibid., pp. 1254-1256.

50) Loïc Rignol, “Le saint-simonisme et la théorie du croisement: Science des races et politique religieuse au XIX^e siècle”, Pierre Musso (dir.), *L’actualité du saint-simonisme* (Paris: Puf, 2004), pp.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은 물질적·정신적 세계의 연결 또는 조직을 의미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개념을 통해 문명의 연합을 설명한다. 사실 슈발리에에는 최초로 ‘네트워크’라는 근대 관념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생시몽주의 연구가 피에르 뮈소(Pierre Musso)에 따르면 본래부터 생시몽의 유럽 통합 관념은 프랑스 경계를 넘어 유럽적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공동체의 가능성을 이미 간파했다. 생시몽의 “네트워크 이데올로기(l'idéologie des réseaux)”⁵¹⁾에 기반을 둔 유럽 시스템의 구상은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 기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생시몽은 초기 연구 시절부터 인간 유기체에 대한 학문 생리학을 사회를 분석하는 근본적인 기초로 파악했다. 사회에 대한 생시몽의 생리학적 문제의식은 그의 망(réseaux), 곧 네트워크 개념으로 나타나며, 운하의 물, 인간 신체에서의 혈액, 사회에서의 지식, 화폐, 존경, 인간과 물자의 ‘흐름’과 ‘순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구성한다. 생시몽의 사회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것은 다양한 사회 구성요소들의 순환과 이동, 활동,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²⁾

슈발리에에는 망 또는 네트워크라는 “근대적 관념”을 물질적 또는 정신적 유대로 정의한다. 슈발리에에게 네트워크는 물질적 사회기반시설과 비물질적 재정을 연합하는 기술이자 동시에 시스템을 형성하는 “정치-윤리적 작동자”이다.⁵³⁾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은 그의 스승 앙리 생시몽의 모빌리티, 순환, 이동, 흐름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시스템 개념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슈발리에 역시 생시몽과 마찬가지로 민족적 그리고 국제적 사회기반시설 네트워크를 인간 신체의 ‘정맥’과 ‘동맥’ 시스템에 비교하는 비유를 자주 사용했다.⁵⁴⁾ 생시몽은 유럽 의회와 같은 정치 제도를 통한 산업 시스템으로서의 유럽 공동체 구성을 전망했다면, 슈발리에에는 인적·물질적 물질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의 민족 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시스

278-283.

51) Pierre Musso, “Le philosophe du nouveau monde industriel”, Nathalie Coilly et Philippe Régner(dir.), *Le siècle des saint-simoniens*, p. 26.

52) Pierre Musso, *Saint-Simon et le saint-simonisme* (Paris: Puf, 1999). pp. 14-20.

53) Ibid., p. 109.

54) Michael Drolet, “Industry, Class and Society A Historiographic Reinterpretation of Michel Chevalier”, p. 1269.

템을 수단으로 지중해에서 동·서양 문명 공동체를 수립하고자 했다. 19세기 초 슈발리에가 구상한 지중해 세계에서 서양과 동양의 화해라는 꿈은 사물뿐만 아니라 과학, 산업, 예술, 곧 모든 문명의 교류를 지향하다.⁵⁵⁾

슈발리에에 앙팡탱의 텍스트에서 영감을 받아 수송과 같은 물질적인 네트워크와 은행 시스템과 같은 비물질적인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종류의 기술적 네트워크를 구분함과 동시에 이 둘의 상호의존을 강조한다. 네트워크는 동양과 서양, 곧 육체와 정신의 통합을 허용하는 생시몽주의 종교의 상징적이고 실천적 작동자가 된다. 네트워크는 기술적 대상이자 보편적 연합의 상징이다.⁵⁶⁾

전체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보편적 연합이라는 상상은 특별한 유토피아가 아니며 모든 근대 유토피아 사상에 씨를 뿌린다. 그런 점에서 생시몽주의는 여전히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신화적 교단 내에서 사회적 유토피아를 기술적 유토피아로 전환시키는 모든 가능한 해석 중의 하나이다.⁵⁷⁾

생시몽이 지향했던 평화적인 국제 질서 이념을 계승하는 슈발리에가 그리는 ‘지중해 연방’은 무엇보다 “가장 멀리 떨어진 대륙을 관통하고 개방하는 특권적인 도구”로서의 철도 네트워크의 기능을 강조하며, “커뮤니케이션 일반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한 지상로와 해상로의 연결을 제시한다.⁵⁸⁾ ‘지중해 시스템’은 유럽 전체와 아프리카 일부 그리고 아시아 일부를 포함하는 세계적 사업으로서, 노동, 생산, 평화를 위한 “거대한 철도 네트워크”의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⁹⁾

생시몽주의 연구가 앙투안 피콩(Antoine Picon)의 말대로 ‘망’ 또는 ‘네트워크’라는 말은 본래 물고기나 동물을 잡는 그물을 의미했다. 이후 점차 식물과 같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조직을 의미하게 됐다. 19세기 초 이 용어는 동맥, 정맥, 신경의 작용을 설명하는 의학 분야에 나타났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수리학과 건설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운하와 같은 교통

55) Émile Temime, *Un rêve méditerranéen*, pp. 11, 39.

56) Pierre Musso, *Saint-Simon et le saint-simonisme*, p. 109.

57) Ibid., p. 214.

58) Georges Ribeill, “Les chemins de fer: de la doctrine aux réalisations” in Nathalie Coilly et Philippe Régnier (dir.), *Le siècle des saint-simoniens: du Nouveau christianisme au canal de Suez*, p. 130.

59) Michel Chevalier, “Notre politique”(Le Globe, 21 mars 1832), p. 24.

또는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일반화를 의미하게 된다. 사실상 슈발리에가 처음으로 철도에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적용했기 때문에,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은 네트워크 용어의 일반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⁶⁰⁾

사실 슈발리에의 철도에 관한 관심은 생시몽주의 운동에 참여한 초기 시절부터 확인할 수 있다. 『르글로브』 편집을 맡았던 슈발리에에는 당시에 드물었던 철도 공사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며 대중들에게 철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1831년 말에는 본격적으로 철도에 대한 선전을 시작했다. 특히 슈발리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1831년 12월 10일 기사는 7월 왕정 이래 주요 유럽 국가가 전쟁에 허비한 14억 프랑을 유럽 주요 도시들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건설하는 데 사용한다면 유럽의 모든 수도를 연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중해 남부 항구도시 카디스(Cadix)를 출발하는 철로는 마드리드(Madrid), 툴루즈(Toulouse), 보르도(Bordeaux), 오를레앙(Orléans), 파리(Paris), 메츠(Metz), 프랑크푸르트(Francfort), 카셀(Cassel), 마그데부르크(Magdebourg), 베를린(Berlin), 포젠(Posen), 바르샤바(Varsovie), 빌나(Wilna, 빌뉴스Vilnius), 리가(Riga),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Pétersbourg)에 이른다. 그리고 앞의 거대한 철도 노선에 교차하여 바르셀로나-마드리드-리스본, 마르세이유-파리-르아브르, 브로츠와프-베를린-함부르크, 벨그라드-빈-프라하-드레스덴-베를린, 베니스-인스브루크-뮌헨-프라하, 모스크바-페테르부르크, 베니스-로마-나폴리, 토리노-밀란-베니스, 앙베르-브뤼셀-마인츠 선이 이어짐으로써, 총 14,000km 철도 네트워크가 완성될 수 있다. 슈발리에에는 이러한 철도 네트워크의 완성으로 유럽의 모습은 새롭게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⁶¹⁾

유럽 대륙 내부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보편적 연합의 가장 완벽한 상징”⁶²⁾인 철도 네트워크는 대륙의 수로와 함께 지중해 연안의 주요 항구들과 연결되어 해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지중해의

60) Antoine Picon, *Les saint-simoniens. Raison, imaginaire et utopie*, pp. 234-235.

61) *Le Globe*, 10 décembre 1831. 다음에서 재인용. Wallon Maurice, *Les Saint-Simoniens et les chemins de fer* (thèse pour le doctorat, 1908), pp. 34-36.

62) *Ibid.*, p. 152.

주요 항구 도시는 대륙의 연결점 기능을 하면서 지중해 일반 시스템(Système Général) 전체가 작동할 수 있는 중심축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⁶³⁾ “대륙의 우애”⁶⁴⁾에 기여하는 대륙의 철도로 연결되는 지중해는 슈발리에 기획의 중심 무대이며 민족들의 물질적·정신적 커뮤니케이션의 “거대한 광장(un vaste forum)”이 될 것이다.⁶⁵⁾

그렇게 거대한 수로들 각각은 그것들과 대체로 평행하는 철도로 연장될 것이고, 수로와 철도의 흐름을 따라 이뤄질 인간과 물자의 거대한 이동은 서로 공유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철도는 사람과 가벼운 물자만을 수송하고, 무겁고 거대한 화물은 항해로 운반되도록 할 것이다.⁶⁶⁾

엔지니어의 천재적 영감을 보여주는 ‘지중해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물질적 유대’와 함께 ‘정신적 유대’인 은행의 네트워크를 통해 완성되며, 정신적 힘과 물질적 힘의 중개 또는 연결을 보장한다.⁶⁷⁾ 산업자의 생산 활동으로 구성되는 산업은 생산 중심지들로 구성되며, 중심지들은 “서로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유대, 다시 말해 교통로의 유대 또는 연결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신적 유대, 다시 말해 은행의 유대로 통합된다.”⁶⁸⁾

은행 네트워크와 교통로 네트워크 사이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전자는 지구에 대한 최선의 개발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편성되고, 후자는 바로 그에 따라 마찬가지로 그 본질적인 요소들에서 결정된다.⁶⁹⁾

V. 맺음말

미셸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 기획은 민족국가의 지리적 경계를 넘어 경제적·산업적 교류 네트워크를 통한 유럽 민족과 동양 민족의 통합 기획

63) Georges Ribeill, “Les chemins de fer: de la doctrine aux réalisations”, pp. 130-131.

64) Ibid., p. 131.

65) Michel Chevalier,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 129.

66) Ibid., p. 135.

67) Georges Ribeill, “Les chemins de fer: de la doctrine aux réalisations”, p. 162.

68) Michel Chevalier,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 131.

69) Ibid., p. 131.

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슈발리에의 기획은 제국주의를 준비하는 시기 민족주의적 기획과는 차별을 두면서도, 서구 유럽 중심적 시각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슈발리에 기획은 경쟁과 전쟁을 수용하는 당대의 자유주의적 입장을 비판하며,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교류를 실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제시한다. 세계 경제 질서의 평화적 재편성에 관한 ‘지중해 시스템’의 전망은 문명에 대한 유럽 중심주의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동양에 대하여 과편, 쾌락, 관능, 먼지, 폐허, 잔해 등과 같은 전통적인 오리엔탈리스트 이미지를 재생산했다. ‘지중해 시스템’은 앙팡탱이 생시몽주의 교리의 핵심축으로 구성한 ‘보편적 연합’ 독트린의 산업적·윤리적 정교화로서, 유럽중심주의적 역사 인식에 바탕을 두고 유럽 민족의 동양 진출을 권장하며 그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생시몽이 구상했던 영국과 프랑스 민족이 주도하는 의회 중심의 유럽 공동체 기획과 비교할 때, 슈발리에의 기획은 계승과 동시에 차이를 보여준다. 두 기획은 모두 문명 진보의 운동 역사에 기반을 두는 낙관적인 미래 공동체 전망을 보여준다.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은 생시몽의 유럽 공동체 기획을 지중해 중심의 지구적 기획으로 확장한다. ‘지중해 시스템’은 사회기반시설의 네트워크와 은행 네트워크의 수립을 통해 동·서양 문명의 연합을 목표로 하는 유럽 중심주의적 기획으로서 미래 신민주의 또는 제국주의를 예고한다. 생시몽 역시 영국과 프랑스 민족 주도하는 유럽 공동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조직 수립을 통한 산업 네트워크 수립하고자 했다. 슈발리에에는 산업을 뚜렷하게 정치 전면에 내세우며 생시몽주의 교리에 따라 유럽과 비유럽을 통합하는 거대서사 ‘보편적 연합’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철도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또는 모빌리티 네트워크로 실현하고자 했다. 슈발리에 기획은 이후 서구인이 지중해서 펼친 식민과 제국을 포함한 많은 활동에 영감을 제공한다.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mistoire@naver.com

주제어(Key Words)

미셸 슈발리에(Michel Chevalier), 지중해 시스템(Mediterranean System), 생시몽주의(Saint-Simonism),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미셸 슈발리에(Michel Chevalier)의 공동체적 상상력

(Communication Network), 보편적 연합(Universal Association)

투고일: 2023.04.20. 심사일: 2023.05.17. 게재확정일: 2023.05.19.

<국문초록>

미셸 슈발리에의 공동체적 상상력: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지중해 시스템'

양재혁

이 글은 미셸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 기획을 살펴본다. 생시몽의 유럽 공동체 기획을 지중해 중심의 지구적 공동체 기획으로 확장하는 '지중해 시스템'은 철도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로 구성되는 물질적 네트워크와 은행이 대표하는 정신적 네트워크를 수단으로 동양과 서양의 보편적 연합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생시몽주의의 고유한 미래 전망이다. 생시몽 역시 영국과 프랑스 민족이 주도하는 유럽 공동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조직 수립을 통한 산업 네트워크 수립하고자 했다. 슈발리에에는 산업을 뚜렷하게 정치 전면에 내세우며 생시몽주의 교리에 따라 유럽과 비유럽을 통합하는 거대 서사 '보편적 연합'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철도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실현하고자 했다. 슈발리에 기획은 이후 서구인의 식민과 제국을 포함하는 지중해 활동에 많은 영감을 제공했다.

<Abstract>

**Michel Chevalier's Communal Imagination:
'Mediterranean System' Communication Network**

Yang, Jae Hyuk

This article examines Michel Chevalier's idea of the 'Mediterranean System'. Expanding from Saint-Simon's European Community plan to a Mediterranean-centered global plan, the 'Mediterranean System' envisions a community composed of material networks such as railways and social infrastructure, as well as spiritual networks represented by the banks. The unique, futuristic project of Saint Simon seeks to build a universal utopia by associating the Orient and the Occident. Thus, Saint-Simon aimed to establish an industrial network through making of a political organization of the European Union, led by England and France; whereas Chevalier prominently emphasized the industrial aspect within the political forefront, with the goal of realizing the grand narrative of the 'Universal Association' that integrates Europe and non-Europe. This vision reflects the era through a communication network centered around the 'railway network'. Chevalier's plan provided significant inspiration for the subsequent activities in the Mediterranean world, including the colonization and empire-building endeavors made by the following Western powers.

참 고 문 헌

1. 사료

Henri Saint-Simon Œuvres complètes, vol. I~IV, Juliette Grange, Pierre Musson, Philippe Régnier et Frank Yonnet (introduction, notes et commentaires) (Paris: Puf, 2012).

Œuvres de Claude-Henri de Saint-Simon et d'Enfantin (Paris: E. Dentu, 1865~1876).

Michel Chevalier, *Religion saint-simonienne: Politique industrielle et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Paris: Bureaux du Globe, 1832).

Philippe Régnier(Édition, introduction et notes), *Le livre nouveau des Saint-Simoniens: Manuscrit d'Émile Barrault, Michel Chevalier, Charles Duveyrier, Prosper Enfantin, Charles Lambert, Léon Simon et Thomas Ismayl Urbain (1832-1833)* (Tusson, Charente: Du Lérot, 1991).

Le Globe.

2. 단행본

육영수, 『근대 유럽의 설계자. 생시몽·생시몽주의자』 (서울: 소나무, 2022).

Braudel, Fernand, 강주현 역, 『지중해의 기억』 (과주: 한길사, 2006).

Braudel, Fernand, 주경철·조준희 역, 『지중해.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서울: 까치, 2017).

Carpentier, Jean and Lebrun, François, 강민정·나선희 역, 『지중해의 역사』 (과주: 한길사, 2006).

Coilly, Nathalie, and Régnier, Philippe (dir.), *Le siècle des saint-simoniens: du Nouveau christianisme au canal de Suez* (Paris: Bnf, 2006).

Levallois, Michel and Moussa, Sarga (dir.), *L'orientalisme des saint-simoniens* (Paris: Maisonneuve & Larose, 2006).

Louca, Anouar, *L'autre Égypte de Bonaparte à Taha Hussein* (Le Caire: IFAO, 2006).

Maurice, Wallon, *Les Saint-Simoniens et les chemins de fer* (thèse

pour le doctorat, 1908).

Musso, Pierre, *Saint-Simon et le saint-simonisme* (Paris: Puf, 1999).

Musso, Pierre (dir.), *L'actualité du saint-simonisme, Colloque de Cerisy* (Paris: Puf, 2004).

Régnier, Philippe, *Les saint-simoniens en Egypte (1833-1851)* (Le Caire: Banque de l'Union Européenne, Amin Fakhry Abdelnour, 1989).

Picon, Antoine, *Les saint-simoniens. Raison, imaginaire et utopie* (Paris: Belin, 2001).

Temime, Émile, *Un rêve méditerranéen: Des saint-simoniens aux intellectuels des années trente (1832-1962)* (Marseille: ACTES SUD, 2002).

Walch, Jean, *Michel Chevalier, économiste saint-simonien 1806-1879* (Paris: J. Vrin, 1975).

3. 논문

김용우, 「프랑스 유럽·지중해문명박물관(MuCEM)의 지중해주의」, 『역사와세계』, 54호(2018), 93~118쪽.

최혜영, 「고대 지중해 식민 활동과 여성」, 『서양고대사연구』, 52호(2018), 107~143쪽.

Drolet, Michael, "Industry, Class and Society: A Historiographic Reinterpretation of Michel Chevalier",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123:504(2008), pp. 1229-1271.

Walch, Jean, "Problèmes Saint-Simoniens et problèmes contemporains: Le système de la méditerranée de Michel Chevalier", *Revue Philosophique de la France et de l'Étranger*, 153(1963), pp. 421-439.

4. 인터넷자료

<https://www.hellenicaworld.com/Greece/Person/en/Hecataeus.html> (검색일: 2023년 04월 15일).

<https://www.societe-des-etudes-saint-simoniennes.org/chevalier> (검색일: 2023년 04월 15일).